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한 번역에 나타난 의문문과
비의문문의 변조에 관한 연구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고미선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한 번역에 나타난 의문문과
비의문문의 변조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은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고미선

고미선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주 심 영어학박사 전 춘 배 (인)

위 원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차

영 문 초 록	iv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	3
2.1. 이론적 배경	3
2.1.1. 의문문의 유형과 의미	3
2.1.2.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	4
2.1.3. 의문문의 간접 화행	5
2.2. 분석 자료 및 방법	7
제 3장 영어문장의 유형별 분류	8
3.1. 종속절	8
3.2. 조동사	11
3.3. 문형 변화	15
3.4. 반어법	17
3.5. 부연	20
3.6. 청유	22

3.7. 반복	23
3.8. 개입	24
제 4장 결론	26
영한 병렬언어자료	29
참고문헌	29



표 목차

<표 1> 영어문장의 유형별 분류와 사용빈도	8
--------------------------------	---



Modulation of Questions and Non-question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s

Mi-Sun Go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modulation according to pragmatic differences, in translating English non-questions into Korean questions. Expressive functions of questions are motivated by modulation. This study analyzes a parallel corpus consisting of the original English text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English constructions are categorized into eight different types: complement clauses, modal auxiliaries, the change of sentence structures, ironical expressions, expatiations, requests, repetitions, interventions. Questions have semantic features and expressions that are sometimes similar to statements or commands. Questions are not limited to matters of doubt, but also serve emphatic or euphemistic uses. Indirect speech as questions can be used to emphasize a speaker's intention or lighten a listener's mood.

제 1장 서론

변조¹⁾는 관점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메시지 차원의 변이로, 직역이나 전환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나 목표언어와의 정서와 어긋나서 적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번역의 방법이다. ‘창문 좀 닫아 줄래요?’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질문의 기능이 아닌 요청의 내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장 형식을 통한 내포적 의미의 전달은 번역시 문장의 변조로 나타날 수 있다(김세정 2008).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1) a. Promise me you'll think about it at least. (Bowler 1997: 156)
b. 그럼 생각이라도 해볼래?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정해영 2007: 159)
- (2) a. There is nothing fair about this situation. (Kennedy 1997: 55)
b. 이 상황에서 ‘공정’이 대체 어디 있어? (조동섭 2010: 61)

예문 (1a)는 명령문, (2a)는 평서문으로 모두 비의문문인데 (1b)와 (2b)에서 각각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두 예문들은 청자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의 경우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해라.’는 명령문을 생각이라도 해보겠냐는 의문문으로 번역되어 화자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 (2)의 경우 ‘이 상황에서 공정은 없다.’는 평서문을 공정이 대체 어디 있냐는 의문문으로 번역되어 공정은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1) Vinay와 Darbelnet(1958)는 언어간 서로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차용(borrowing), 모사(calque), 직역(literal translation), 전환(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변안(adaptation)이라는 번역 방법 일곱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내용과 문체상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한 번역 방법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위의 예문 (1)과 (2)와 같이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발화에 드러나는 표면상의 의미만으로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의문문 형식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화행은 질문이다. 그러나 의문문 형식을 통해 예문 (1)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예문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한 병렬언어 자료를 이용하여 번역시 문장의 변조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의문문이 수행하는 간접 화행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의문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한 병렬언어자료의 분석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영한 병렬언어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어문장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4장은 결론으로서 요약과 정리를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의문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한 병렬언어자료의 분석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2.1.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의문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1.1. 의문문의 유형과 의미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의문문의 유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의문문의 구성 조건은 형식적인 면과 의미적인 면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가 있다. 형식적인 조건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거나 의문사가 있으며, 영어의 경우에는 어순의 변동이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의문 종결어미나, 의문 어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어의 경우에는 의문 억양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면에서 의문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면에서도 발화 자체의 의미만으로는 적절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직접 화행은 물론 간접 화행이 상황 맥락 또는 담화 맥락에 의해 해석되어야 비로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수행이 이루어진다. 의문문의 관습적 정의는 화자가 미지의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그러한 정보를 원하는 또는 요청하는 발화 행위라고 할 수

있다(Quirk *et al.* 1972). 의문문은 청자로부터 대답을 기대하거나, 청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 볼 때 명령문과 일치하는 점이 많으며 요청 또는 부탁(mands)의 하위 유형(subtype)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즉, 의문문은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화·청자의 의사소통적 발화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주로 의문문은 언어적 응답을, 반면, 명령문은 비언어적 행위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인교 1998).

2.1.2.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화자의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의문문의 본질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Jespersen 1924). 그런데 Lyons(1977: 754)는 이를 반대하고 의문문은 명령문과 같은 요청의 일종이 아니라 화자의 무지의 표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재연(2005)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의문문이 화자의 무지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의문문의 의미 영역은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과 통한다. 또한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도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쳐 자리 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3) a. 이제 같이 놀기도 어렵겠네?

b. 벌써 청소를 다 해 났구나?

‘네’가 이끄는 문장은 화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자의 ‘모름’이 아닌 ‘앎’을 표현하고 있다. ‘-겠-’은 추측, 즉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3a)의 화자는 ‘-겠-’뿐 아니라 ‘네’가 함께 통합되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고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정보임이 표현된다. (3b)의 ‘-구나’ 역시 ‘네’와 마찬가지로, ‘새로 앎’의 속성, 즉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앎을 표현하는 평서문의 기능을 할 뿐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2.1.3. 의문문의 간접 화행

이전 연구들에서 밝혀진 의문문의 간접 화행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Searle(1979)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 간접 화행을 통해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는 주된 동기는 언어 사용에 예절을 갖추려는 공손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Leech(1983) 또한 간접적인 언표내적 행위는 청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더 공손한 표현이 되기 쉬우며, 발화가 간접적일수록 발화의 강도는 약해진다고 하였다. Gibbs(1986)은 화자의 요구나 명령은 종종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잠재적으로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화자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Yule(1996)은 명령의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을 줄이고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한 완화 장치가 필요한데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의문문을 통한 명령 의사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Huddleston(1994)에 따르면

‘direction question(지시질문)’은 지시의 간접성 때문에 청자의 부정권이 보장되며 따라서 직접 지시보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

이한민(2010)은 의문문 형식의 간접 화행이 수행되는 이유는 크게 부담 완화와 강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담 완화는 화자의 의도를 약화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강조는 화자의 의도를 강화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4) a. 나 소원이 있는데, 니가 나대신 나가주면 안 돼?

b. 귀에 이어폰 틀어막고 있었던 게 잘 했다는 거야?

(4a)의 화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청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물음과 동시에 그 행위를 청자가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의도를 알림으로써 ‘나대신 나가줘’라는 지시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4b)의 화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귀에 이어폰 틀어막고 있었던 거 잘한 거 아니다.’라는 진술 화행을 수행함으로써 강한 어조로 청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간접 화행이 수행되는 경우는 보다 공손한 표현을 위해서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이다. 공손성을 염두에 두고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로 인해 청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의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화자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접 화행의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 간접 화행 수행의 목적이 된다. 화자는 추가적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접 화행을 통해 칭찬, 감탄, 주장, 비난 등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이전 연구를 정리하면, 첫째, 의문문의 관습적 정의는 화자가 미지의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그러한 정보를 원하는 또는 요청하는 발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식 양태와 의문문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화자의 앎의 척도, 즉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과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에서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의문문 형식의 간접 화행이 수행되는 이유는 크게 부담 완화와 강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 완화는 화자의 의도를 약화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강조는 화자의 의도를 강화된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2.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한 병렬언어자료는 Bowler(1997)의 *River Boy* (이하 'River'로 약함)와 그 번역본인 정해영(2007)의 「리버보이」(이하 '리버'로 약함), Kennedy(1997)의 *The Big Picture*(이하 'Picture'로 약함)와 그 번역본인 조동섭(2010)의 「빅 픽처」(이하 '픽처'로 약함)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된 예를 찾기 위해 먼저 한국어 번역본에서 의문문을 추출하고, 이들 문장과 대응하는 영어 문장들 중에서 비의문문만을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

제 3장 영어문장의 유형별 분류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되는 예는 154개였다. 다음은 영어문장의 유형별 분류와 사용 빈도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영어문장의 유형별 분류와 사용 빈도

분류	종속절	조동사	문형변화	반어법	부연	청유	반복	개입	합계
빈도	46개 (30%)	35개 (23%)	30개 (19%)	25개 (16%)	10개 (6%)	3개 (2%)	3개 (2%)	2개 (1%)	154개 (100%)

<표 1>에서 보듯이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것이 46개로 가장 많았으며, 조동사는 35개, 문형 변화는 30개, 반어법은 25개, 부연은 10개, 청유는 3개, 반복은 3개, 개입은 2개였다.

3.1. 종속절

주절의 동사가 특정 동사, 즉 의사소통 동사(communication verbs) 혹은 심적 동사(mental verbs)²⁾일 때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먼저 주절의 동사가 의사소통 동사일 때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2) 동사 어휘들은 activity verbs, communication verbs, mental verb, causative verbs, verbs of occurrence, verbs of existence or relationship, verbs of aspect의 일곱 가지 의미 범주로 분류된다(Biber *et al.* 2002: 433).

(5) a. A³): Rachel. Who's Rachel?

B: My girlfriend.

A: You said you were single.

B: I am. But I do have a girlfriend in New York. Coming out to visit me over Christmas, so if you're around, we'd love to... (Picture, p.240)

b. A: 레이첼? 레이첼이 누구죠?

B: 애인.

A: 싱글이라면서요?

B: 맞아요. 그렇지만 애인은 있어요. 크리스마스 휴가때 저를 만나러 올 겁니다. 그때 괜찮으시다면... (픽처, p.301)

(5a)의 동사 say는 화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싱글이라고 말했잖아요.'라고 평서문으로 번역했다면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을 화자의 어조와 감정을 (5b)와 같이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함으로써 화자의 진술 의도를 강조하였다. 즉 화자 A는 B에게 싱글이냐고 정말로 묻는 것이 아니라 애인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므로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주절의 동사가 심적 동사일 때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6) a. A: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be with him.

3)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자가 임의로 A와 B로 표기하였다.

B: I was but he wanted to be alone to paint and said I could go swimming.

A: But You don't look as though you've been swimming.
(River, p.120)

b. A: 너 할아버지랑 함께 있었잖니?

B: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셔서, 나보고 수영이나 하라고...

A: 그런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구나. (리버, p.123)

(6a)의 동사 think는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명제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6b)에서 화자 A는 B가 할아버지랑 함께 있었다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어지는 A의 발화에서 제시되는 '그런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구나.'라는 진술 내용을 통해서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고,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발화에 반영되어 '할아버지와 왜 함께 있지 않았느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비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영어의 간접 의문문⁴⁾이 한국어의 직접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7) a. Jess glanced at Alfred and wondered whether they should be talking about Grandpa like this in front of him. But to her surprise Alfred was chortling to him. (River, p.71)

b. 제스는 알프레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저분 앞에서 이런 심각

4) 간접 의문문이 의문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라는 점은 다른 유형의 종속절과는 다르게 그 특징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분류하였다.

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그러나 놀랍게도 알프레드 할아버지는 키득거리고 있었다. (리버, p.76)

(7a)의 whether은 yes/no 간접 의문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7)의 예문은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한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화행의 적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7b)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망설이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주절의 동사가 특정 동사, 즉 의사소통 동사 혹은 심적 동사일 때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첫째, 화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할 때 화자의 어조와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둘째,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갈등이 존재할 때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발화에 반영되어 화자의 비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영어의 간접 의문문이 한국어의 직접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화자의 생각의 흐름, 즉 내적 갈등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3.2. 조동사

양상⁵⁾ 조동사가 나타난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먼저 조동사 can이 나타난 비의문문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5) Lyons(1977: 45)는 양상을 ‘어떤 명제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8) a. A: OK. We'll go and see Mr. and Mrs. Gray, and Jess can stay here.

B: You sure, Jess? I can stay behind if you want to explore with Mom.

A: She'll be fine.⁶⁾ (River, p.50)

b. A: 좋아요. 이제 그레이 씨 부부를 보러 가죠. 제스는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지?

B: 괜찮겠니? 아빠가 있어도 돼.

A: 괜찮을 거예요. (리버, p.55)

(8a)의 can⁷⁾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제의, 제안 또는 가벼운 명령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정희자 2005). (8)의 예문은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공간에 있는 청자 C에게 can을 사용하여 화자 A는 명령을 하고 있고, B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8b)에서 A의 발화만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제스는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지?'라는 의문문 형식의 명령은 무언가를 지시한다기보다는 제안한다는 느낌이 강해서 화자가 청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선호될 수 있는 화행의 방식이다(이한민 2010). 따라서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8)의 담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must가 나타난 비의문문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9) a. A: We both feel guilty enough as it is, being so bound up

6) 발화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물의 동작을 서술한 지문은 생략하였다.

7)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능력 또는 사건·상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역동적 양상 조동사이다 (정희자 2005).

with Pop. You must think we're neglecting you, and we probably are.

B: I don't, and you're not. (River ,p.106)

b. A: 있잖아, 제스. 혹시 우리가 네게 소홀하다고 생각하니? 지금껏 너보다 할아버지 위주로 생활해왔으니까.

B: 그렇게 생각 안 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소홀한 적 없어. (리버, p.109)

(9a)의 must⁸⁾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실한 가정이나 판단을 나타낸다(정희자 2005). (9b)의 의문문을 통해 화자 A는 '우리가 네게 소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는 생각을 진술한다. 이어지는 발화에서 제시되는 '지금껏 너보다 할아버지 위주로 생활해왔으니까.'는 사실이 앞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화자 A는 의문문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자 B로부터 어떠한 답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의 진술 의도를 청자에게 다시 한 번 각인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should가 나타난 비의문문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0) a. A: Exactly. Strange, isn't it-I mean, for him to be so specific. Still, he hasn't finished it yet, so maybe he's going to put the boy in later. I made the mistake of asking him about it.

8) 발화에 담긴 명제의 진리치의 필연성 또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과 관련된 인식적 양상 조동사이다(정희자 2005).

B: Mom!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A: I know, but I couldn't resist it. It's such an unusual picture, especially having a name. (River, p.16)

b. A: 그래, 이상한 일이지. 제목이 '리버보이'인데 '소년'이 없더니... 하긴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니까 나중에 소년을 그리실 수도 있지. 사실, 엄마가 살짝 여쭙봤단다.

B: 응? 새삼스럽게 왜?

A: 엄마도 바로 후회했어. 하지만 너무 궁금하잖아. 그림도 특이하고 생전 안 붙이시던 제목까지... (리버, p.22)

(10a)의 should⁹⁾는 의무를 나타내는데, 과거의 사건이나 행동에 대하여 후회, 질책 또는 때늦은 충고를 하기 위하여 should have-p.p를 사용한다(정희자 2005). (10b)에서 화자 B는 의문문 형식으로 A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하고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때늦은 충고를 하고 있다. 평서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진술 화행을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수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서문에 비해 강한 어조로 느껴지는 의문문의 성격을 이용하기 위함일 것이다(이한민 2010). 따라서 화자의 생각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 등을 다른 어휘의 추가적인 사용 없이도, 평서문의 형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강한 어조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양상 조동사가 나타난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첫째,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함으로써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둘째, 화자

9) 도덕적 책임이 있는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의 필연성 또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무'나 '허락'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의무적 양상 조동사이다(정희자 2005).

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술 의도를 청자에게 다시 한 번 각인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생각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 등을 평서문의 형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강한 어조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3.3. 문형 변화

부사절이나 형용사의 의미가 강조되었을 때 문장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먼저 부사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11) a. A: When can I move in?
B: Monday morning, I guess, if that's good by you.
A: Fine. I'll be here to sign the lease at ten, if that suits.
B: Sounds good to me. Uh, you wouldn't be able to supply us with some references, would you? (Picture, p.238)
- b. A: 언제 이사할 수 있죠?
B: 괜찮으시다면 월요일 아침에 하세요.
A: 좋습니다. 열 시까지 계약서에 서명하러 올게요. 괜찮죠?
B: 좋아요. 아, 계약금을 좀 주고 가실 수 없나요? (픽처, p.299)

(11a)에서 B의 발화에 나타난 'if that's good by you'와 A의 발화에 나타난 'if that suits'는 주절의 명제를 통제하는 조건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사절이다. 그러나 (11b)에서 A의 발화만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

것은 B의 발화는 청자가 수행하는 미래 행위의 조건이지만, A의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미래 행위¹⁰⁾의 조건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간접적인 행위가 더 공손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화자 A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청자의 의향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질문하는 방식의 간접 화행을 통해서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을 줄이고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형용사가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2) a. A: I like the sound of the river. I really do. It makes me think of swimming. I'd have chosen this room even if there'd been others free. Anyway, all that matters is that Grandpa's comfortable downstairs.

B: I just hope he is. (River, p.30-31)

b. A: 난 물소리 좋아해. 정말이야.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수영하는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걸. 아마 다른 방이 있었어도 이 방을 골랐을 거야. ...오히려 할아버지가 걱정이야. 편안하실까?

B: 그러셔야 하는데. (리버, p.35)

(12a)의 화자 A는 걱정의 원인이 되는 문제, 즉 할아버지가 편안하신지의 여부에 대해 발화를 하고 있다. 이것을 (12b)에서 '편안하실까?'라는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함으로써 화자의 걱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B의 발화가 화자 A의 의문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것을 보

10) Searle(1969, 1979)이 제시한 지시 화행과 청유 화행의 적정 조건을 응용하였다.

면, B가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화 상황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강조하기 위해 형용사 'comfortable'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부사절이나 형용사의 의미가 강조되었을 때 문장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첫째, 화자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청자의 의향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간접 화행을 통해서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을 줄이고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둘째,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화 상황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3.4. 반어법

부정의 의미를 가진 영어의 비의문문이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 의문문¹¹⁾은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전달할 수도 있다. 먼저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반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3) a. A: You really don't like me, do you?

B: Maybe that's because you've never particularly liked me.

A: Stop talking nonsense...

11) 최현배(1994)는 의문문은 청자의 생각을 물음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화자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평서문 대신에 의문문을 쓰는 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문문은 청자에게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만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그 물음과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 된다고 하고, 이러한 의문문을 뒤집음 말(反語)이라고 한다.

B: It's not nonsense. It's fact.

A: You're my only child. I've never hated you...

B: But you think I'm a disappointment. A professional disappointment. (Picture, p.28)

b. A: 너는 이 아버지가 싫지?

B: 아버지가 딱히 저를 좋아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A: 헛소리는 그만두고...

B: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A: 넌 하나뿐인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니?

B: 그렇지만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잖아요. (픽처, p.31)

(13a)의 담화에서 화자 A의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데 반해 B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13b)에서 B가 A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버지가 딱히 저를 좋아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라는 의문문 형식의 발화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는 이어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니?'라는 의문문 형식의 발화를 통해서 '나는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즉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인 B를 좋아한다는 발화 의도를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3)은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면서 청자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반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전달하는 반어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4) a. A: If you show up here, I will get the police. You don't

want the police.

B: You haven't a legal leg to...

A: It would still look bad. Very bad.

B: You wouldn't dare...

A: I've never liked you. I would. (Picture, p.103)

b. A: 여기 나타나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그러긴 싫죠?

B: 법으로 해보자는 겁니까?

A: 정말 너무하네. 아주 끔찍해.

B: 어떻게 그런 말을?

A: 내가 제부를 좋아한 적이 있는 줄 알아요?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 같네요. (픽처, p.123)

(14a)의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이고, 그러한 감정을 발화에 드러내고 있다. (14b)에서 화자 A와 B의 발화 대부분이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의문문이 갈등 상황에서 더 강한 어조를 갖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화자 A의 '내가 제부를 좋아한 적이 있는 줄 알아요?'라는 발화는 반어법을 사용해서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14)는 '나는 제부를 좋아한 적이 없다.'라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면서 청자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반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영어의 비의문문이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면서 심리적 태도, 즉 담화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3.5. 부연

영어 텍스트에 없는 의문문을 부연함으로써 한국어 텍스트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와 생각의 흐름을 강조하였다. 먼저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을 부연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

(15) a. A: Ben, if I were you...

B: You said she was there. You said...

A: I said she doesn't want to speak with you. And she...

(Picture, p.102)

b. A: 제부, 나라면...

B: 처형은 집사람이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A: 내가 언제 그랬어요? 베스가 제부랑 말하기 싫다고 했다는 말만 했지. 그리고... (픽처, p.122)

(15)에서 B는 A가 어떤 명제에 대한 발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A는 그런 발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동일한 명제에 대한 화자와 청자 간의 입장 차이, 즉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자 A는 B에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15b)에서 반어 의문문을 부연하였다.

이제 화자의 생각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을 부연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

(16) a. But there was no sign of the boy. She stared around her, breathing hard. This didn't make sense. He couldn't have

walked more than a few yards in the time it had taken her to get here, and there was enough moonlight to see him by. But all she saw was the river flowing past her, giving no sign that anyone had ever traveled through it. (River, p.100)

- b. 그러나 소년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별장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소년도 분명 얼마 못 갔을 텐데 왜 안 보이는 거지? 혹시 그냥 지나친 것일까? 아니다. 달빛이 있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강에 가까워올 때까지 그녀가 본 것이라고는 흐르는 강물뿐이었다. 게다가 강가에는 누군가 이곳을 지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리버, p.102-103)

(16a)는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나타낸다. 화자는 갑자기 사라진 소년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16b)에서 왜 소년이 보이지 않는지를 의아해 하는 화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화행의 적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여기에서 의문문은 화자의 무지의 표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Lyons 1977: 754). 따라서 소년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14b)에서 의문문을 부연하였다.

지금까지 영어 텍스트에 없는 의문문을 한국어 텍스트에서 부연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첫째,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이 부연되었다. 둘째,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이 부연되었다.

3.6. 청유

화자와 청자가 함께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제안할 때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청유문¹²⁾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7) a. A: So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river boy?

B: Sorry.

A: Not to worry. Well, let's get going. Bring the picture out to the car, can you? (River, p.19)

b. A: 역시 그림에 대해 생각나는 건 없니?

B: 응.

A: 그래. 그럼 이제 가볼까? 제스, 그림을 들고 올래? (리버, p.24-25)

(17a)의 let's는 명령문의 특별한 유형으로 화자 A는 B에게 함께 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화자가 제안하는 것에 대한 청자의 의향이나 능력을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청유 화행을 수행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청유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자가 거절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자가 화자의 청유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이한민 2010). 따라서 (17b)에서 청자에게 가

12)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청유문이 문장 유형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let's구문이 고정적으로 청유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영어에서도 청유문을 개별 문장 유형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이한민 2010).

해지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청유문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화자와 청자가 함께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의문문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유 행을 수행한다면 청자가 거절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담감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3.7. 반복

화자가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반복할 때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반복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18) a. 'I must inform you, however, that I will be consulting a lawyer in the next few days. I think you should do the same.' *Click*. I sat down slowly on the sofa and shut my eyes. I must inform you, however. So formal. So detached. So arctic. She really meant business this time. And it scared me shitless. (Picture, p.101)
- b. '어쨌든 미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며칠 동안 변호사와 상담할 생각이야. 당신도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어.' 푹. 나는 천천히 소파에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어쨌든 미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라니? 아주 점잖군. 아주 무심하군. 아주 냉정하군. 아내는 몹시 사무적이었고, 나는 몹시 두려웠다. (픽처, p.121)

(18a)에서 화자는 응답기에서 재생되는 발화를 듣고 상대방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나타낸다. 부인이 이혼을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이라는 응답기 메시지를 들은 화자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화자의 심리 상태의 원인인 응답기 메시지에 남겨진 부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18b)에서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¹³⁾

지금까지 화자가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반복해서 말할 때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 즉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3.8. 개입

화자가 상대방의 말에 끼어들 때¹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제 담화 상황에서 개입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19) a. A: I didn't know we could see that far. It's like...it's like...
B: Like seeing a whole life.
A: A whole life?
B: The life of the river. (River, p.186)

13) 최현배(1994)는 평서문은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데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조를 바꾸어 청자의 말한 바를 다시 확인하거나 강조하는 질문으로 쓰는 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평서문의 음조를 높여서 의문문으로 쓰는 일은 다른 나라 말에는 흔하지만, 우리말에는 비교적 드물다.

14) Sacks *et al.*(1974)에서는 얼핏 무질서하게 보이는 일상 대화에서의 말순서 취하기(turn-taking)에 나름대로의 체계성과 질서정연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말순서 취하기 규칙(turn-taking rules)을 제시하고 있다.

b. A: 저렇게 멀리까지 보일 줄은 몰랐는데. 이젠 마치...마치...

B: 사람의 일생을 보는 것 같지?

A: 일생이라고?

B: 강의 일생일 수도 있고. (리버, p.192)

(19)의 화자 B는 A의 발화에 끼어들고 있다. B가 A가 하고 있는 말의 흐름을 막기는 했으나, 필요한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담화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적정지점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고의적으로 말을 시작하여 발언권을 빼앗는 우발적 말 끼어들기와는 다르게 우호적 말 끼어들기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적정지점 이전에 끼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주제나 요지의 전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원표 1999). 이런 우호적인 말 끼어들기가 (19b)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체면을 높여주기 위해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화자가 상대방의 말에 개입할 때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화자가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의 흐름을 막고, 필요한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담화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제 4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영한 병렬언어자료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되는 예는 154개였다. 영어문장의 유형별 분류와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것이 46개(30%)로 가장 많았으며, 서법 조동사는 35개(23%), 문형 변화는 30개(19%), 반어법은 25개(16%), 부연은 10개(6%), 청유는 3개(2%), 반복은 3개(2%), 개입은 2개(1%)였다.

첫째, 종속절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의 어조와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갈등이 존재할 때 화자의 비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한편, 영어의 간접 의문문이 한국어의 직접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의 생각의 흐름, 즉 내적 갈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둘째, 조동사가 나타난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간접 지시 화행을 수행함으로써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자의 진술 의도를 청자에게 다시 한 번 각인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또한 화자의 생각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 등을 강한 어조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셋째, 문장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감을 줄이고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화 상황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넷째, 부정의 의미를 가진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반어 의문문으로

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면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 의문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문문을 부연한 경우는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여섯째, 청유문이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의문문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유 화행을 수행한다면 청자가 거절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담감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

일곱째, 화자가 상대방이 했던 발화를 반복할 때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가 발화한 실제의 말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 즉 화자의 심리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여덟째, 화자가 상대방의 말에 개입할 때 의문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화자가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의 흐름을 막고, 필요한 표현을 제공함으로써 담화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의 비의문문이 한국어의 의문문으로 번역될 때 의문문 형식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화행인 질문이 아니라 진술, 지시, 청유의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비의문문이 의문문으로 번역되는 영어 문장의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조가 일어나는 상황이 청자의 부담 완화와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영어 원문 소설책 2권과 그 번역본 2권에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다. 변조에 대한 연구는 전적으로 문장 형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연관되는 언어적 요소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 담화시의 정황 등 비언어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의 비의문문과 한국어의 의문문을 형식적인 조건과 의미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한 병렬언어자료

- 정해영. 2010. 「리버보이」. 서울: 다산책방.
- 조동섭. 2010. 「빅 픽처」. 파주: 도서출판 밝은세상.
- Bowler, T. 1997. *River Bo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edy, D. 1997. *The Big Picture*. London: Abacus.

참고문헌

- 김세정. 2008. 영한 번역에 나타난 부정 표현의 변조. 「번역학연구」 9.2, 45-66.
- 박재연. 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46.1, 101-118.
- 이원표. 1999. 토크쇼에서의 말 끼어들기: 담화 기능과 사회적 요인. 「담화와 인지」 6.2, 23-59.
- 이한민. 2010. 한·영 의문문 형식의 간접 화행 연구. 「담화와 인지」 17.2, 95-118.
- 정인교. 1998. 영어와 한국어의 의문문의 비교분석. 「동서문화」 31, 161-175.
- 정희자. 2005. 양상조동사에 대한 담화적 고찰. 「새한영어영문학」 47.3, 207-232.
- 최현배. 1994. 「우리말본」 (열일곱번째 펴냄). 서울: 정음문화사.
- Biber, D., Conrad, S., Leech, G. 2002. *Longman Student Grammar of*

-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Gibbs, R. 1986. What Makes some Indirect Speech Acts Convention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2, 181-196.
- Huddleston, R. 1994. The Contrast between Interrogatives and Ques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0.1, 411-439.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이환묵, 이석무 (역). 1987. 「문법 철학」. 서울: 한신문화사.)
- Leech, G. 1983. *Principle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Sacks, H. Schegloff, E. A.,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 696-735.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nay, J. P., Darbelnet. J. 1958.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Paris: Didier. (전성기 (역). 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번역 방법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Yule, G. 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